

대전청사 공무원 오찬 간담회

변화에 대한 동의는 있으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인사하고 격려하러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사하고 격려하려면 밥 한끼 먹어야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점심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밥만 먹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겠습니까. 여러분께 당부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다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잘해왔는가 돌이켜보면 잘해왔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지만 참 잘해왔습니다. 경제도 잘해왔고 정치도 이만하면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고 자신도 생깁니다. 근데 이 시점서 이대로 가면 잘 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이대로 어영부영 간다고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관세청장께서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을 얘기했듯이 시련과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로 안 된다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다잡아서 신발 끈 다 잡아매고 다시 변화의 도약을 한번 해야 한다는 것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변화해야 한다는 합창이 나오면서도 실제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바깥으로 보고 나는 말고 당신에게 변하라

고 하고 국민은 공무원에 변하라고 하고 경제인은 노동자가 변하라고 하고 노동자는 경제인이 변하라고 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원론적으로 자기가 먼저 변해야 남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변해서 정부를 바꾸는 것보다 정부가 더 빨리 변해서 국민이 바뀌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듣지만 수반된 문제에 비난도 듣습니다. 앞으로도 실컷 잘하고 비난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공무원이 앞장서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선거를 거쳐서 여러분의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분과 호흡이 처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온 것도 호흡한번 맞춰보자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정권을 처음 잡으면 공무원 군기잡고 자르고 해서 국민에게 표 내려고 하는데 저는 안합니다. 조직개편, 행적혁신 필요할 것입니다. 분권 위해 많은 조직 변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결론내서 자발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이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계란껍질은 깨집니다. 계란껍질 깨지면 기껏 잘해야 후라이가 되지만 자기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됩니다. 뒷날 후배들에게 큰소리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선배가 됩시다. 여러분의 하자는 얘기 귀담아 듣고 무조건 제가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토론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해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자기혁신 이뤄달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달라서 자꾸 엇박자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엇박자 줄이고 박자가 잘 맞고 가락이 잘 맞는 합창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